

문화일보 문화

기사 게재 일자 : 2012년 03월 06일

동서고금의 聖像, 하나로 일그러지다

김기라 개인전… 인간의 헛된 욕망 표현

신세미기자 ssemi@munhwa.com

그리스로마 조각과 불상부터 아프리카 목 조각과 각종 가면까지, 동서고금의 성상(聖像)들이 혼재한다. 이질적 상징물들이 바닥과 선반에 놓여 있는 전시장 벽면에 사진과 드로잉 작품들은 신전을 장식한 신상처럼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기묘한 형상을 드러낸다.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두산아트센터 1층에서 29일까지 열리는 김기라씨의 개인전은 벼룩시장이나 골동품상의 옛 물건처럼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으로 다가선다. 전시작은 대부분 이슬람, 불교, 힌두 등 종교적 상징물이지만 전시장에선 공예품이나 조각처럼 그저 색과 형태를 드러낼 뿐이다.

2009년 국제갤러리 전시에서 슈퍼맨, 배트맨 등 미국 영화 속 영웅 이미지가 뒤엉킨 '몬스터' 시리즈 외에 21세기 정물화로 햄버거, 갑자튀김 등 패스트푸드를 주목해 화제를 모았던 작가가 신화와 성상의 이미지를 해체·변형·조합한 신작을 발표한다.

작가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줄리 앤드루스)의 노래를 차용한 '공동선-모든 산에 오르라!'란 제목으로 역사 유물을 재해석하며 종교와 인간의 욕망을 은유한다. 전시작은 역사 신화서적에서 채집한 신의 형상을 오리고 재구성한 콜라주 작품을 촬영한 사진, 얼굴과 팔다리가 여럿인 기묘한 형체의 색연필 드로잉들이다.

전시장에 화분식물을 들여다 놓는 등 공간 설치에 뛰는 기획력을 발휘해온 작가는 이번에는 인도, 영국 등지서 수집한 골동품을 보조물로 활용했다.

그리스여신, 시바신의 손, 소의 다리, 물고기 뱀 등 인간이 숭배해온 각종 형상의 조합은 신상의 정점이기는커녕 오히려 괴물의 형태다. 신작의 제목은 전작 '몬스터' 시리즈와 또 다르게 '스페터(specter)', 즉 '망령(亡靈)'이다. 종교와 이념이 모두에게 유익한 '공동선'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선 종교의 상충이 갈등과 전쟁을 불러오는 등, 망령처럼 인간을 억압하며 욕망을 부추기고 있음을 깨러디한 작품이다. 각양각색 이미지의 믹스 앤드 매치를 통해 "조화와 공존 없는 번영은 폭력"임을 일깨운다.

문자작품 '신은 너를 용서했지만 나는 결코(God 4Gives U, But I Do Not)'는 신이 준 믿음·소망·사랑 외에 욕망의 4가지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 다른 설치 '우리들의 잃어버린 마음가짐, 2012'는 유리판 위에 올려놓은 다이아몬드, 금, 진주의 결혼예물을 통해 깨지기 쉬운 헛된 욕망을 비튼다.

신세미기자 ssemi@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